▣ 2005년 우즈베키스탄 경제 회복할 것인가?

□ 2004년 우즈베키스탄 경제 현황

○ 숨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
- 2004년 1월 4일 우즈베키스탄 국가은행의 기준율이 1달러당 976숨을 기록하였으며, 2005년 1월 4일 현재 1달러당 1,058.63숨을 기록하여 1년간 8.5%의 평가 절하를 기록하였음.

○ 외환 보유고 부족
- 우즈베키스탄 국가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외환 보유고는 금을 제외하고 5.5억불이나,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적으로는 약 3억불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○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미미
-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음.
- 전문가들에 의하면 2004년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 2~3억불에 불과하며, 우즈베키스탄의 기업들에 대한 통제로 인하여,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기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□ 2005년 우즈베키스탄 경제 전망

○ 숨화의 평가절하 지속 전망
- EIU보고서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국가은행 기준율이 2005년 12월 말에 1달러당 1,170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, 이는 2005년 1월 4일 1달러당 1,058.63숨을 기록한 것에 비해 10.5%가 평가 절하되는 수치임.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급격한 숨화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숨화의 절대 통화량을 억제하고 있어, 숨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외화를 숨화로 환전하기 어려운 실정임.

○ 외환 부족 현상 심화
- 2005년 1월 4일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가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고는 금을 제외하고 5.5억불이나, 전문가들은 약 3억불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-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적인 외채는 44억불로서 만기일이 도래하는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○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강화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노력중이지만,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투자 유치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- 다만, 중국과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의 석유, 가스 및 자원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5년도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**타슈켄트무역관이 바라보는 우즈베키스탄 경제 전망은?**

○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국제적인 기구(은행)들로부터 경제 개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.

○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,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기업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.

○ 이로 인하여 외국인 기업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,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보다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2005년도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가 전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, 우즈베키스타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상승율에 따라 경제가 약간 호전될 수 있다고 예상됨.

(문의처 : 타슈켄트무역관 권태진 Tashkent@kotra.or.kr)